

특집

□ 石油製品의
수급전망 □

석유제품수입 自由化속에 체질강화 서두르는 日本석유업계

— 大韓石油協會 弘報室 —

금년부터 日本은 사상 최초로 휘발유등 석유제품의 수입번호를 개방한다. 대규모 정유회사로 수입자격을 제한하는 등 부분적인 解禁이라고는 하나, 이를 계기로 그동안 정부의 보호속에 안주하여 오던 石油業界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자유화·국제화를 서두르고 있다. 消費地精製主義를 기조로 해온 모라토리엄(執行猶予) 체질은 이제 통용되지 않게 되었다.

석유제품수입문제가 제기된 계기는 원래 歐美諸國이 東南亞나 사우디 아라비아로부터의 석유제품수입증가에 대해 우려의 목청을 높임에 따라 日本에게도 수입을 요구하게 된 것이다. 日本의 經常黑字가 대폭적으로 늘어난 것도 영향을 미쳐 外部의 압력은 더욱 높아졌다.

미찰완화에는 微力

石油業界로 말하면 「석유제품수입이라고 해도 나프타나 重油는 벌써부터 대량으로 수입해 오고 있다. 지금에 와서 휘발유나 경유를 수입하지 않는다고 해도 經濟大國으로서의 역할은 하고 있다」는 것이며, 당초에는 석유제품 특히 휘발유의 수입에 반대자세를 보였다. 값싼 휘발유가 들어와 국내시장이 혼란되고 業界의 수익창구를 상실할 우려도 있다.

日本의 석유제품시장은 휘발유가 국제시장보다도 상당히 비싸고, 등유와 경유가격은 지나치게 싼 「왜곡된 시장」이기 때문이다.

通産省·資源에너지庁이 작년 11월 석유제품의 수입관련 법안을 제출하여 휘발유수입 解禁이 결정적으로 이루어지게 된 이후 각석유회

石油各社の 휘발유 輸入計劃

企業名	輸入先	輸入量(kℓ)
日本石油	사우디, 韓國, 하와이	4萬~5萬
出光興産	韓國, 美國등	未定
昭和靑石油	싱가포르, 中共	2萬, 6千
三菱石油	하와이, 韓國등	5千~1萬
日本鑛業	하와이	1萬5千
코스모石油	하와이	5千

註：輸入量은 今年 1~3월에 도입할 물량임.

사는 서둘러 수입계획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대외무역차찰완화라는 國策에 협력할 뿐」이라는 이유로 수입량은 미미하다. 아무리해도 무역불균형을 시정하는데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현재 밝혀진 각 석유회사의 휘발유수입 계획은 거의 1~3월 기간에 현물로 1회 수입하는 것 뿐이다. 그 양도 15~20만kl로 예상되고 있다. 연간 휘발유수요량의 불과 0.4~0.5%이다. 「수익이 많은 휘발유」를 방어하려는 자세가 나타나고 있다.

그래도 「일단 자유화되면 환원은 될 수 없다. 석유회사의 경영자세는 변화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당초부터 석유제품의 완전 자유화를 주장하고 있는 出光興産의 사장도 「석유회사의 최고경영자는 官庁街에 관심을 가질 뿐만 아니라, 국내외의 시장동향을 주시하면서 고도의 판단을 내려야 하도록 되었다」고 말했다.

확실히 자유화의 물결에 따라 경영방침을 바꾸려는 움직임이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 하나는 판매강화책이다. 주유소의 경영을 강화하기 위하여 信販會社(Credit 판매회사)와 제휴하여 크레디트 카드를 이용하는 예가 증가하고 있다. 昭和シェル石油나 共同石油, 大協石油 등이 좋은 예이다. 주유소의 대금회수업무를 줄이고 불량채권발생시의 위험부담을 없앨 수 있으므로 주유소의 경영체질을 개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달은 POS의 도입

POS(販売時點情報管理)시스템도 보급되기 시작했다. 出光은 금년중에 대형 계열주유소에 온라인형 POS시스템을 도입한다. 日石, 大協 등도 省力化, 판매정보수집을 목표로 POS시스템의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 「마침내는 대형상사 등이 휘발유판매에 나서게 될 것이다. 정제설비를 후세 大業으로 지키려고만 해서는 안 될 것이다. 판매망의 강화가 불가피」한 것이다.

과잉설비폐기에 의한 체질강화의 움직임도 86

년부터 본격화될 것이다. 에너지庁은 금년 5월을 목표로 민간출자의 「石油産業活性化센터」(가칭)를 만들어 3년간에 걸쳐 業界전체의 정제능력을 14~20%, 日産 70~100만배럴을 감축할 계획이다. 이미 東亞燃料工業은 清水工場을 금년 여름에 조업중단할 계획으로 있다.

휘발유의 수입이 점차 증가되면 국내 수요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국내생산량은 감소되지 않을 수 없다. 정제설비의 過剩感은 차츰 강하게 나타날 것이다. 에너지庁은 휘발유수입에 대해서는 수입규모 등을 정하지 않고 각사의 자주적인 판단에 맡길 계획으로 있다. 수입을 선택할 것인가 국내정제를 선택할 것인가는 정제설비의 폐기문제와도 연결되고 있어 각사 최고 경영자의 중요한 의사결정이 될 것이다.

日本の 각 석유회사들의 경영기반은 아직 약하다. 매출액은 많아도 이익은 적으며 自己資本比率도 낮다. 예를 들면 日本石油의 경우 매출액은 약 3조円(85년 3월期)이지만, 경상이익은 약 150억円, 매출액 이익률은 0.5%에 불과하다. 우량제조업과 비교해도 확실히 낮다.

視野확대 개혁필요

더우기 業界대부분은 원유도입을 대형상사나 메이저에 의존하고 있다. 日石도 텍사코와, 세브론의 합병회사인 칼텍스에 수입원유의 50% 이상을 의존하고 있다. 텍사코의 게티 오일買入을 둘러싼 배상문제로 美国情報에 전전공공하고 있는 실정이다. 텍사코문제는 새삼스럽게 日本石油業界의 무력함을 부각시켰다고 말할 수 있다.

석유제품의 수입자유화에 따라 「석유회사는 국제경쟁력을 높이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을 것」이라고 出光社長은 말했다. 판매강화 등의 국내대책뿐만 아니라 원유확보능력까지 포함한 국제적 視野에서의 경영개혁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 (日經産業新聞 86. 1. 1)